

지난해 김포공항 이용객수 감소

지난해 김포공항을 이용한 여객수가 경기불황의 여파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김포공항 국내·국제선을 이용한 여객수는 모두 2천9백30만명으로 전년 3천6백49만명보다 19.8% 줄었다. 국내선 이용객의 경우 지난해 1천6백28만여명으로 전년(2천1백27만명)보다 23.42% 줄어 들었다. 지난해 1천3백만명이 이용한 국제선은 전년(1천5백21만명)보다 14.53%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세는 지난 80년 공항공단이 항공기 이용객수를 조사한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는 항공기 여객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만명 가량 늘어나 올해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한국공항공단은 내다보고있다

한일항공회담 서울-오사카 증편협의

한국과 일본은 지난 19~21일 제주공항 회의실에서 양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회담을 갖고 서울-오사카노선 증편과 서울-후쿠시마, 센다이노선 신설에 합

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서울-오사카노선의 경우 여객기는 현재의 주 49회에서 56회로, 화물기는 주 23회에서 25회로 각각 늘리고 서울-후쿠시마(여객) 노선과 서울-센다이(화물) 등 2개 노선을 신설키로 했다.

또 항공공간 영업협력 촉진을 위해 항공기와 승무원을 포함하는 항공기 포괄임대차(Wet-lease)와 항공공간 편명공유(Code share)도 허용키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으로 한일노선의 공급 좌석이 늘어나고 신규노선이 개설돼 양국간 여행편의 증진은 물론 국적 항공사들의 수익 증대가 기대된다.

특히 한-일 노선의 편명공유가 가능해져 우리 항공사와 세계 유수 항공공간 전략적 제휴도 촉진될 전망이다.

한편 양국은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에 대비, 항공기운항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상반기중 개최하고 도쿄 나리타공항의 제2활주로 완공(2001년 예정) 이전에 서울-도쿄노선 증편을 위한 회담을 갖기로 했다.

CIT 그룹 에어버스 및 보잉 여객기 주문예정

미국 최대 리스회사중의 하나인

CIT그룹이 50대 이상의 보잉과 에어버스 여객기를 주문하기로 결정하였다.

뉴저지에 본사를 둔 CIT그룹은 A320 25대, A330 5대와 추가옵션 주문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B737 약 20대도 주문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에어버스에 장착될 엔진을 선정하지 못한 관계로 확정 주문 계약은 2월 중순쯤 할 것으로 알려졌다.

CIT그룹은 미국 최대 중고항공기 리스회사로 B747, 757, 767, MD-11, A320 등 약 200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에바항공 에어버스 여객기 인도포기

대만의 에바항공은 에어버스 A340-500/600 항공기 12대의 인도를 포기하였다.

에바항공은 대만의 해운회사 에바그룹의 항공운항부분으로 1991년 운항을 시작하여 급속한 성장을 보였으나, 최근 아시아의 경제위기로 작년 상반기에만 약 1,7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바항공은 확정주문 6대, 옵션 6대의 발주의향서를 조인한바 있으나, 구매포기를 함에 따라 보잉사 항공기만 계속 보유하게 되었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상량식 거행**

지난 1월 28일 영종도 신공항 건설현장에서 김종필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상량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상량식을 계기로 여객청사 골조공사를 사실상 끝내고 본격적인 마감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설계와 건축을 병행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공법으로 시공되고 있는 여객터미널은 축구장 60배 면적에 해당하는 연면적 15만평(길이 1천66m, 폭 149m, 높이 33m) 규모로 2000년 6월 준공예정이다. 지난 92년 11월 착공된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의 전체공정은 현재 60.8%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 6월까지 시공을 완료한 뒤 2000년 7월부터 12

월까지 종합시운전을 거쳐 2001년초에 개항할 예정이다.

**SAS, 최초로 A330/340
주문하기로**

SAS(Scandinavian Airline System)은 노후 여객기 대체 구입으로 에어버스 A330/340을 선택할 예정이다. 동사는 보잉사의 B777-200의 10대 구입 대신 A330/340을 주문하기로 하고 현재 협상을 진행중이며 내년부터 인도를 희망하고 있다.

보잉사 대신 에어버스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아시아 시장 등 항공교통에 대한 장기 전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99년도 항공교통 성장률을 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SAS는 항공운송 성장률보다 항공기 좌석 증가율을

작게 증가시킬 방침이며, B777-200은 A340-300보다는 크기 때문에 좌석 용적률에서 고려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성이 없는 홍콩, 로테르담, 베니스의 운항도 올 3월안에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사는 98년말전에 확정주문을 하기로 하였으나 내부의 자금문제 등으로 올해말까지 연기하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항공기 가치를 평가중이며 현재 주문을 위한 확정된 일정은 없으나 올해말까지는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동 거래가 성공된다면, 단 한대도 SAS에 인도를 못하고 있는 에어버스는 최초로 인도를 하게되며 향후 거래도 기대를 하고 있다. 보잉사는 1970년 이래 현재까지 약 80대의 항공기를 납품해 오고 있다.

**알림
기다립니다**

항공우주는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전달과 무의의 내야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의견, 협회 및 기업체 등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의견이 있으시면 편집자에게(전화: 761-1104, 한봉수) 보내주세요.

**정기
구독안내**

본 항공우주지는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기반 확충과 대중적 이해의 확산을 위해 정기구독을 원하는 분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편료 정도의 부담으로 1년이상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항공우주협회 기획과로 신청해 주십시오. 1년간 구독료는 12,000원입니다. ■전화: 761-1101 ■FAX: 761-1175